

문화체육관광부가 KBO리그를 포함한 스포츠경기의 관중입장 규모 상향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도 총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입장이 허용된다. 스포츠동아DB

〈2단계 지역〉 〈1.5단계 지역〉

서울 30%·부산은 50%까지 프로야구 등 관중 입장 상향

내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구단 '숨통'
실내구장인 고척돔은 20%까지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적자에 시달려온 프로야구단들이 입장관중 규모 상향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총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경기장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KBO리그 등 스포츠 관중입장 규모 상향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대구 등)은 현행 총 수용가능 관중 10%에서 30%로 늘어난다. 1.5단계 지역(부산, 대전, 광주, 경남 등)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실내임을 고려해 20%다. 이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용된다. KBO리그는 각 구장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및 각 팀의 홈경기 운영에 따라 관중입장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음달 이후에는 새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리단계 단계별 규정이 다시 적용될 전망이다.

KBO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에 각 구단의 재정적 위기, 야구장 안팎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입장관중 비율 확대, 취식 허용 등 방역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KBO는 "방역당국의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 비율 확대 결정을 환영하며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더 안전한 경기장에서 보다 흥미로운 경기로 관중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O는 관중입장 비율 확대에 따라 각 구장의 출입구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미판매 좌석 착석 방지를 통한 거리두기 준수, 안내 및 안전요원 증원 등 방역 관리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관중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KBO리그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오늘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강릉고(왼쪽)와 대구고가 14일 목동구장에서 펼쳐질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격돌한다. 두 팀 모두 황금사자기에선 우승한 적이 없어 누가 우승컵을 가져갈지 주목된다. 목동 |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base@donga.com

강릉고 vs 대구고…황금사자기 주인은?

작년 준우승 강릉고, 우승 재도전
최지민·정준재 등 조직력 탄탄해
대구고, 강호 경남고 꺾고 결승행
외야수 두정민·선발 전영준 눈길
오후 6시30분 SPOTV서 생중계

1일 개막한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동아일보사·스포츠동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주최) 패권은 창단 첫 황금사자 트로피를 노리는 두 팀의 맞대결로 좁혀졌다. 14일 오후 6시30분 목동구장에서 강릉고와 대구고가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강릉고는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김해고에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내줬고, 대구고는 2018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새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린다. SPOTV에서 생중계한다.

●강릉고 "김진욱 없이도 해냈다!"

최재호 감독이 이끄는 강릉고는 1975년 창단했고, 지난해 대통령배 우승으로 첫 전국대회 우승의 꿈을 이뤘다. 올해 첫 전국대회인 황금사자기를 제패하며 고교 최강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지난해 강릉고는 에이스 김진욱(롯데 자이언츠)의 존재감이 큰 팀이었다. 김진욱이 프로에 진출한 올해는 다소 고전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7이닝 동안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2승을 챙긴 좌완투수 최지민, 공·수를 겸비한 내야수 정준재, 외야수 허인재 등 여럿이 힘을 모아 결승까지 올랐다. 이 같은 조직력은 강릉고의 가장 큰 강점이다. 선수들도 '원 팀'의 결속감을 결승 진출의 비결로 꼽았다. 정준재는 "야수들은 어떻게든 실수를 줄이려 하고, 투수들이 실점을 막아내면서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고, 최지민은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우승까지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대구고 "3번의 아픔은 없다!"

손경호 감독이 지휘하는 대구고는 1976년 창단했다. 황금사자기에선 1983년과 2018년 2차례 결승에 올라 모두 광주일고에 패한 아픔이 있다. 올해는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중반까지는 '대진운이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준결승에서 강호 경남고를 제압하며 우승 후보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대구고 역시 눈에 띄는 한 명의 선수에 의존하는 야구가 아닌 조직력으로 승부를 거는 팀이다.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신고하며 12타수 4안타(타율 0.333) 3타점을 기록 중인 외야수 두정민, 투·타에서 두루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우완투수 전영준의 존재감이 돋보인다. 전영준은 12일 경남고와 4강전에서 3이닝 1안타 2볼넷 3삼진 무실점으로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당시 투구수가 48구에 불과해 14일 결승에 나서는 데 무리가 없다. 2학년 우완 사이드암 김정운이 투구수 제한에 걸려 결승 등판이 불가능하기에 전영준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4경기에서 13 타수 7안타(타율 0.538)의 맹타를 휘두른 3루수 이재용은 공격의 첨병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